

■ 박지원 민주당합당 19대 국회 원내대표·비대위장 단독 인터뷰

“분열은 죽는 길... 오직 정권교체”

박지원 최고위원이 19대 국회 민주당합당 초대 원내대표에 선출된 것은 이해찬 전 총리와 의 ‘역할 분담론’에 대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그의 경험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민주당합당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일보는 지난 5일 목포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대선 정국에서의 원내 전략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은 결선 투표까지 가는 등 아슬아슬했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지역민께 감사드립니다. 아슬아슬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저력이다. 어떤 경우에도 독주, 독선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내부 역량을 모아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

-이해찬 전 총리와 의 역할 분담론은 유효하다.

▲6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박지원이 죽는 것을 넘어 민주당이 죽는 길이다. 대선도 물 건너간다. 민주당의 대표는 국민과 당원이 결정한다.

-대선 승리를 위해 강력한 쇄신을 통한 내부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의 혁신과 쇄신은 공천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제 남은 길이라고는 의정활동 밖에 없다. 국민이 '민주



민주당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장이 6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원장과 대선 후보단일화 방안 모색 6월전대 공정 관리...지역 의원 도전 기대 MB정권 각종 비리 임기내 털고 가게 할 것

당을 화합해서 이끌고 대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라는 격려와 경고다.

-사실상 '정치적 올인'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내 자신만 생각했다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출마여서 정치적 위험이 컸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졌다면 박지원의 정치는 거의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 패배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민주당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의 취약성이라면.

▲분열이다. 통합을 이뤄지만 내부적으로는 친노, 시민사회, 구 민주계, 노동계 등이 화합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의 공천 실패와 정통민주당 창당 등이 이를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통합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민생을 기반으로 치열한 의정활동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빨갱이 아닌 덧셈, 곱셈 정치로 나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원내 대책은.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가 엄청나게 많다. 각종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국회를 가져와서 정리하는 방법이 이 대통령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는 길이다. 여기서 덮고 가려한다면 퇴임 후에 더 큰 불행이 올 것이다.

-'박근혜 대세론'에 대한 입장은.

▲박근혜 대세론은 실체가 없다. 허수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다. 시대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박근혜 식의 '한 마디 정치'로는 국가를 운

영할 수 없다. 한마디 정치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합당 대선 주자 가운데 자질 면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뒤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국민적 감동을 견인한다면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안철수 원장과 소통은 하는지.

▲하지 않고 있다. 내부 결속이 우선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원장이 민주당에 들어와 경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 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문을 열어 놓고 치열한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 안 원장과 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6월 전당대회에서 지역 정치권의 분방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 지도자는 키워지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도전을 통해 국민속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개인적으로 광주·전남지역 초·재선 의원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정치적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도전은 정치적 자산으로 남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역할분담론’ 불거진 갈등 수습 개원협상·지도부 선출 등 산적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 출범 과제는

지난 4일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민주당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주도하고 대선 정국에서 원내전략을 총 지휘한다는 의미에서 어깨가 무겁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4·11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현 지도부를 대신해서 내달 9일 열리는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전대를 관리해야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그동안의 원내대표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새누리당과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는 대선에

대비행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배정,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언론청문회 등의 관철에 힘을 쏟으며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긴장관계가 어느 때보다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친노(친노무현)와 비노 간 갈등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 당을 완전히 장악한 친

노의 색깔을 지우면서 국민에게 수권능력을 보여주는 당의 모습을 갖추는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이 박 원내대표가 해야 할 최대 과제다.

‘이해찬 당대표-박지원 원내대표’ 답합론에 대한 당내 우려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당 운영과정에서 친노에 끌려다닐 경우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는 “6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정성을 보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여유있는 승리를 장담했던 그가 2차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신승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때문에 내달 임시전대에서 이해찬 당선자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내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당 관계자는 6일 “박 원내대표가 당 운영을 원만하게 하면 현재 친노가 장악하고 있는 당 구조상 이해찬 전 총리가 아주 쉽게 당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산술적 공정성보다는 실제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의 체질을 과감하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비대위원 13명 선임

민주당합당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다음달 9일 신임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고 전당대회를 관리한다.

비대위원장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맡았고 비대위원으로는 김우남 노영민 박기춘 의원(이상 3선), 김현미 김태연 의원(이상 재선), 김관영 민홍철

이학영 최민희 한정에 홍의락 의원(이상 초선), 원외에서 고연호(서울 은평을) 송영철(강릉) 지역위원장 등 13명이 선임됐다.

또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기춘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는 이윤석 의원이, 원내대변인으로는 우원식 이인주 의원이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화영 최민희 한정에 홍의락 의원(이상 초선), 원외에서 고연호(서울 은평을) 송영철(강릉) 지역위원장 등 13명이 선임됐다.

또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기춘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는 이윤석 의원이, 원내대변인으로는 우원식 이인주 의원이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6월 전대도 모바일 투표 도입

당무위 결정...당대표·최고위원 선출 농어촌은 유선전화 면접원 조사 검토

민주당합당은 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9일 열리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임시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애초 전대 준비 위원회에서 이번엔 한해 모바일 투표 대신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에만 검토를 요청했지만 최고위와 당무위원회의는 지난 1월 전당대회처럼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65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특히 농촌과 도서지역에서는 모바일 투표 참여가 불편하므로 유선

전화 면접원 조사 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및 국민 유효 투표 결과를 70%, 대의원 유효투표 결과를 30%를 반영해 합산한 전대 득표 순위에 따라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지난 1월 전당대회는 2만1000명의 대의원선거단 투표 30%와 모바일을 통한 일반 시민 투표 7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비

대위원과 논의하고 당내에서 협력해 인준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전당대회 물은 당무회의에서 합법적 당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전체 대의원의 수는 1만 8381명 이내이며 기존의 선출직과 당연직 대의원 외에 정책대의원을 별도로 신설, 전체의 30% 이내인 5514명 미만으로 배정했다.

정책대의원제의 도입은 당의 정책역량과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당 개혁사항으로 오는 14일까지 중앙당 정책위와 정책협약을 맺은 단체의 구의원 중 지도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의원에 임명돼 각종 당내 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이 지킨다

무릎찢질, 허리찢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 물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 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부 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물없이(특허특제제10-096707 호 발명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C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 며 일반반상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 휘나핫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리한 시간에 1-2회정도 하게 적당하다. 맨치, 맨티, 맨얼굴 착용 후 휘림도중 침울을 종이컵 한컵과 따뜻한 물을 한컵복용한 후 반신욕을 시작한다(약 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설정 하세요). 반신욕을 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지 않고 일정시간(30분~1시간)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샤워를 하지 않아도 땀냄새나 끈적거림이 없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경영** 을 검색하세요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발효된 휘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속병,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용출판사 | 임상특허 | 값 5,000원
김봉선·박종훈 공저
북처는마음 | 15,000원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문의: 070-7804-5358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장 상태는 1개월만에 원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면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허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참옷 골드

매산 **울타방** **진액**

mkc 지식경제부 | 충청테크노파크 | miraRhus
*이 제품은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충청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육천참옷 AIS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 가족 건강 생각하는 당신 마음을 담았습니다.
• 평안도 명산 포수들의 비법을 되살렸습니다.
• 옷섬머를 명산 울타방 진액, 그 원료가 더합니다.
• 게르마늄 광천수로 유명한 삼남리 186미터 원수 사용
• 이때쯤 옷나무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 옷에도 공활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소 주산지를 찾아 해매면 사람이 지하 186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을 만들었습니다.

▶ 옷에 대한 숭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옷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 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5월 가정의 달! 1세트 9병 + 추가증정 3병 4/28~5/28일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